

許筠의 「東征賦」 研究

黃 亮*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東征賦」의 압운 |
| II. 「東征賦」의 형식 구조 | V. 鄭澈 「관동별곡」과의 비교 |
| III. 「東征賦」의 서술적 태도 | VI. 맺음말 |

< 국문 초록 >

중국에서는 辭賦문학이 매우 중요한 장르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부가 지어졌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부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의 손실을 의미한다. 許筠의 「東征賦」를 연구하는 것은 사부문학 뿐 아니라 허균의 문학연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동정부 연구를 통해서 허균의 문학은 물론 사부문학의 典型을 밝히고자 한다. 사부는 歌辭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이 둘의 비교연구는 가사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로 아직 사부문학에 익숙하지 못한 韓國漢文學에 일조를 하고 싶다.

【주제어】 허균, 동정부, 사부, 가사, 비교연구.

* 중국 안휘성 지주시 지주대학교 외국어학과 강사 / 273871587@qq.com

I. 머리말

辭賦는 역사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詩, 散文과 같이 중국문학의 3대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장르이다. 다른 장르가 대부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장르인 점과 달리 사부는 중국과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장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사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여유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운문과 산문을 겸비한 고도의 세련된 문학이다. 장르형성의 과정으로 보아 운문이 제1장르, 산문이 제2장르라고 한다면 사부는 제3의 장르라고 할 수 있고, 제1장르와 제2장르를 융합·겸비했다는 점에서 가장 세련되고 완성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가 한국에서도 성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같은 漢文學圈인 일본이나 베트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중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사부문학은 科擧에서 반드시 지어야 할 필수적인 장르여서 매우 성행하였다. 따라서 한국한문학에서 사부문학의 연구는 漢詩나 다른 산문처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사부는 아직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다소간의 초보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그 중에서도 광미선, 「허균의 동정부 연구」²⁾는 본제와 동일한 연구였으나 이는 동정부의 작품을 집중한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을 달리하여 동정부를

-
- 1) 한국에서 사부의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사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김성수에 의한 韓國賦 研究(1994)가 처음이다. 이어서 한국사부의 이해(1966), 사부문학연구(2007)가 이어졌을 뿐이다. 허균의 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유독 그의 사부문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김성수, 「허균의 사부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13, 1998; 김진경, 「허균 부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양상」, 『한문고전연구』, 17, 2008. 사부와 가사의 비교연구에는, 이정선, 「가사와 사부의 비교연구」, 『한국중국학회』 6, 1967; 이경백, 「가사와 사부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14; 이은형, 「정철의 가사와 허균의 사부의 비교를 통한 가사의 특성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등이 있다. 관동별곡과 동정부의 비교연구로는, 김성수, 「정철의 관동별곡과 허균의 동정부를 통해 본 가사와사부의 인연관계 고찰」, 『한어문교육』 4, 1996; 등이 있었다.
- 2) 『열상고전연구』 27, 2008.

통하여 사부의 본질, 일반적인 문학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사부의 형식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접근하였다. 사부의 형식은 사부를 사부답게 하는 특징이므로 이에 소홀히 한다면 사부의 본질을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부문학 연구는 작품 연구보다는 장르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연구의 기초가 닦여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부문학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균형 있는 漢文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의욕만 앞서는 일이지만 漢文學의 본산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한국의 漢文學에 일조를 하고 싶다는 용기를 내었다.

許筠은 漢文學者 중에서도 걸출한 인물이었으므로 작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아 여기에서는 지면을 줄이기로 한다. 허균은 한국의 漢文人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한 인물이었고, 그의 문학평론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비록 多作의 辭賦家는 아니었지만 그의 사부는 한국사부의 精髓라 할 수준이었고, 「東征賦」는 그 중의 하나이다. 작품의 규모에 있어서도 장편에 해당하고,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부의 정형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해야 할 작품이다. 그리고 한글문학인 가사와도 장르적 관련성이 깊어 비교문학적인 가치가 높다. 사부와 가사와의 비교문학을 통해서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부작품이 아직도 가려져있다는 것은 한국문학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다.

사부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위해서 사부문학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더불어 그 형식,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사부의 형식 탐구는 사부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사부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형식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東征賦」의 형식 구조를 중심으로 사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사부의 3단구조와 압운을 밝히는 것은 그 중요과제일 것이다.

「東征賦」는 기행적인 서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과 동일한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그 문학적 정서도 상당 부분이 닮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동정부가 정철의 관동별곡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작품은 닮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문학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본격적인 비교문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辭賦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것을 古賦라고 하는데 「東征賦」는 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고부는 漢代에 성행했던 사부이다. 허균 당대는 이미 고부의 시대가 아니었지만 조선에서는 아직도 고부가 성행한 것은 사부의 전형에 충실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古賦는 3단구성과 함께 서사위주, 과장반복 묘사, 長篇 등의 특징이 있는데

「東征賦」는 대개 이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행의 과정과 감상을 적은 전형적인 紀行사부이다. 기행사부는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적었다는 점에서 사실, 현실위주의 작품을 띄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허세나 감상에 흐르기 쉬운 사부의 병폐를 면했다는 점도 허균 사부의 자랑이다. 「東征賦」 외에도 「思舊賦」 「竹樓賦」 「東林城賦」는 선명한 기행사부인데 그의 사부 작품이 모두 14편인 것을 생각하면 허균 사부의 남다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東征賦」의 제작연대로 밝혀진 癸卯年이라면 1603으로 許筠의 나이 35세 때이다. 순탄하다 할 수 없는 그의 일생에 대해서 상론할 겨를이 없지만 東征賦는 司僕寺正에서 물러나서 江陵의 外家로 落鄕하였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Ⅱ. 「東征賦」의 형식 구조

사부의 형식구조는 사부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부의 형식적 특성은 사부를 사부이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나 소설 수필 같은 문학장르들이 내용면에서는 보편적인 주제의식을 갖지만 형식에서는 각기 다른 면모로써 장르가 갈라지듯이 사부도 역시 형식에서 하나의 장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부의 연구

가 주로 내용에 치우쳐 장르의 형식과 일반적 특성이나 개념, 본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튼튼치 못한 감이 있다. 사부의 기반적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東征賦」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고자 한다. 漢詩가 보통 기-승-전-결이라는 4단계 구성을 갖고, 小說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5단계 구성으로 독립된 장르를 이루듯이 辭賦는 보통 서-본-결의 3단계 구조로써 사부 장르로 존재한다. 물론 모든 사부가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혹은 그 이상의 단계나 이하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시나 소설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들이 반드시 4단계나 5단계를 갖추지는 않는다.

그 동안 사부의 문학적 개념, 특성, 본질 등에 대해서 다소의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사부문학 연구 전반에 걸쳐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특히 그 형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東征賦」의 형식미를 살피기 위해서 併序부터 인용한다.

癸卯 余自太僕 落職東歸 回游楓岳 遂之溟州別墅 留焉數日 海山之觀 寔多瑰奇 爰命翰以賦其事 才愧興公³⁾ 不能盡台嶽之美焉 後之覽者只取其曠述幽踐而恕其詞拙可也

계묘년에 관직에서 물러나와 落鄉하여 금강산을 거쳐 강릉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산과 바다를 보니 모두가 수려한 장관이었다. 이에 붓을 들어 賦를 지으니 재주가 孫綽을 따르지 못하여 그 山嶽의 아름다움을 다 그리지 못하였다. 뒷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天台山賦의)광활하고 아득한 발길만 좇다가 졸렬에 그쳤음을 탓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다.

이 부분은 작품의 첫머리로 작품을 짓게 된 목적과 동기, 심정 등을 간단하게 밝히고 있어 작품의 序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부의 특징인 시가성이나 압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사부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 부분에 시가적인 압축, 함축성이 없다는 것은 시가문학인 辭賦로써 결격사유가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의 머리

3) 中國 東晉의 孫綽의 號. 그의 작품 중 「天台山賦」를 意中에 둔 것으로 생각됨.

에서 併序라 했고, 작품의 동기와 배경을 적었으니 작품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부가 반드시 규칙적으로 압운을 하는 것도 아니고, 併序는 古賦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부의 序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 가운데에 不能盡台嶺之美焉은 중국의 天台山賦⁴⁾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작자의 겸손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중국사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입증하는 장면이다. 중국사부의 영향은 이 작품의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사부의 연구에는 중국사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작품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한국 사부문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설령 併序를 작품의 구성에서 제외하더라도 사부의 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다음을 본다.

夙承皇之渥惠兮 ⁵⁾ 叨司戒乎禘招◎	일찍이 聖恩을 크게 받아 황궁하옵게 도 분에 넘치는 官 爵을 받아
睇阿閣而連軒兮 聆九陛之舜韶◎	화려한 구중궁궐에서 임금의 두터운 사랑을 받았었네.
嗟貞乘而自昧兮 遂致寇於清朝◎	아, 곧음만 내세웠지 世에 어두워 모함을 받아 官職에서 물러났네.
既與世而相違兮 寧海山之逍遙◎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東海山에 노니리라.

序에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의 심경을 적은 곳으로 또 하나의 序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詩歌의 긴장과 압

4) 孫綽의 사부작품. 이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은 이 작품이 그의 사부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국사부가 한국사부에 미친 영향은 이 외에도 많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처럼 그 영향을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사부에서 -兮를 감탄사로 번역하는 일이 많지만 「東征賦」 같이 서사적 기행성이 강한 작품은 대등한 서술절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운을 충실히 해서 사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은 압운된 글자의 표지이다. 그러나 압운으로 보면 다음의 已解까지 동일한 압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아서도 여기까지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기 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자의 의도는 작품의 序를 거기까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압운과 환운은 사부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부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으로 연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형식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운과 환운에 특별히 유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 부득이 작품 전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慨余行之遲遲兮 出國門而東邁◎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궐을 나와 동으로 내달으니
欣我服之返初兮 快帝懸之已解◎	本然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쁘고, 官爵을 벗어남이 좋도다.
駭余駟乎梓里兮 邸余車乎金淵◎★6)	말을 몰아 고향으로 내달려 행차가 금연에 이르니
喜賢甥之倒履兮 闕賓樹而開筵◎	어진 조카 반가이 뛰쳐나와 자리 보아 잔치상 벌였네.
逐澗曲而泛巨兮 命榜人而刺舡●	계곡의 물 좇아 술잔을 띄우니 사람 불러 뱃전장단이 흥겹도다.
翩絲膾之落箸兮 令我飽而忘旋◎	고운 생선회 맛들어져 배불러도 돌아갈 줄 모르도다.
謁舅塋於南岡兮 悲梓樹之蔚芊◎	앞산에 올라 外家 先塋에 省墓하니 잠목 우거졌음이 슬프도다.
循脩途而滄宿兮 風露悴兮蕙帶◎★7)	旅路 험한 나그네길 비바람 맞아 초라한 몸차림으로

6) 여기에서 1차 환운을 한 것은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앞은 출발 전의 감상이다. 고향에 도착하기 까지의 여정과 고향에 도착한 후의 상황과 정서가 묘사되었다. 舡●은 압운을 깬 것으로 缺韻이다. 결운도 사부 압운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7) 2차 환운이다. 고향에 돌아온 감개와 흥취가 사라지고, 고향을 떠나 금강산 유람이 시작되는 장면이다.

阪阿迤之不踰兮 川何洑之不厲◎	험한 고갯길 넘기 어렵고, 물길마저 험하구나.
云余屈夫金城兮 地主館諸西廂◎★ ⁸⁾	금성에 막혀버린다 하더니 낮선 집 사랑에 묶였구나.
詠同氣之遺什兮 渙余涕之盈眶◎	흐어진 형제를 생각하니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遵通溝而抗策兮 陟斷髮之嵬嶺◎	통구를 돌아들어 지팡이 휘어잡고 단발령 높이 올라
睇萬玉於雲際兮 覺游興之先聘◎	구름 아스라한 곳, 일만 玉峰 바라보니 감개가 앞서도다.
跋川漲而逶遲兮 昏余抵兮長安◎★ ⁹⁾	성난 계곡물에 걸음 더더 저물어서야 長安寺에 다다르니
正殿嵬以千霄兮 施腹燦其金丹◎	하늘 높이 솟은 大殿에 丹青이 찬란하다.
儼佛軀之紫磨 ¹⁰⁾ 兮 疑仿像乎泥洹◎	금빛 찬란한 위엄의 佛像을 보니 열반에 이른 모습이고,
壁初繪乎李楨兮 訝道玄 ¹¹⁾ 之開元◎	李楨의 佛畫를 벽에 걸었으니 吳道玄의 그림을 보는 듯.
紛龍天之走趁兮 絢玉豪於雲端◎	龍이 어지러이 하늘을 날고, 구름 끝에 珠玉이 찬란하다.
喚山僮而舉藍兮 ¹²⁾ 從百川而東折◎★ ¹³⁾	아이 불러 藍輿 타고 백천동 따라 東

- 8) 3차 환운이다. 금강산에 들어선 감개를 읊은 장면이다. 금강산에 들어서기 전의 憂愁가 금강산이 절경에 매료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재빨리 환운을 한 듯하다.
- 9) 4차 환운은 장안사의 장면을 각별히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장안사의 웅장한 모습, 불상과 불화를 선명히 묘사하기 위해서 압운을 바꾼 것이다.
- 10) 原稿에는 磨로 되어있으나 의미상 磨로 고침.
- 11) 唐 玄宗代人. 字는 道子. 佛畫와 山水畫를 잘 그려 畫聖으로 불림.
- 12) ‘舉藍’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 가파른 길을 가마를 타고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자의 ‘與石洲書’는 그 주된 내용이 金剛山紀行으로 되어있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이 ‘明登眞歇臺去藍步躋開心臺’로 되어있어, ‘舉’는 ‘去’로 보아야 보다 순리적이다. 그러나 原文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 13) 5차 환운은 장안사를 떠나 심왕천을 건너 영원사에 도착한 장면이다. 금강산 험한 길을 가마를 타고 여행한 당시 양반의 횡포가 드러나 있다. 더구나 가마꾼이 장안사의 중이었다면 더 그렇다.

飛流陲以噴壑兮 峯屹成而峭拔◎	쪽으로 꺾어지니 계곡의 물은 골짜기를 울리고 봉우리는 우뚝 섰다.
涉十王之湍湍兮 闕靈源之金利◎	十王川 거친 골짜기를 건너 靈源寺에 머물렀다.
晨理履於松蘿兮 攀望高而峻躋◎★ ¹⁴⁾	아침 일찍 이끼를 헤쳐나가 망고대 험한 길 올라, 꺾아지른 절벽 겨우 올라보니 헛된 인간이 덧없도다.
崖斗絕而乘絙兮 慢性命之幾涅◎	산봉우리 올라 소매를 떨치니 발 아래 골짜기에 구름이 서렸구나.
振余衣於高頂兮 襲衆壑之下低◎	산봉우리 올라 소매를 떨치니 발 아래 골짜기에 구름이 서렸구나.
窺鬪龍於鳴湫兮 佶蜿蜒而潛伏◎★ ¹⁵⁾	못 龍이 다투는 소리 들리더니 어느덧 용트림으로 서려 있네.
訪正陽之吳畫 ¹⁶⁾ 兮 遂東樓之馳矚◎	正陽寺에서 吳道玄의 佛畫를 보고 동루로 달려가니, -중략 ¹⁷⁾ .
駭萬狀之競奇兮 羌不可乎應接◎	만물이 놀라 기이함을 자랑하니 이루어 형언키 어렵도다.
忽夕陽之西轉兮 曠滿谷之靄靄◎★ ¹⁸⁾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고 골짜기 서리단풍 가득한 데, 계곡은 온통 보라빛으로 채워져 있고, 뿔부리는 붉게 타고르고,
組紫綵而綴硤兮 麓崎嶇之酣紅◎	

14) 6차 환운은 망고대에 오른 심경을 읊은 장면이다.

15) 7차 환운은 정양사이다. 작자는 불교에 심취된 적이 있어 특히 불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여기에서 작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금강산의 절경을 정밀묘사하고 있다. 금강산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이 정양사 근처였던 것 같다.

16) 吳道玄이 그린 그림. 작자의 「八角殿看佛畫」에 ‘皆云道玄 來畫垂千歲 道玄是貴臣 何緣遊海外’라는 구절이 있음. 작자는 그 불화가 중국인 도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듯하다.

17) 이 부분은 아래의 서술적 태도로 옮겨 중복을 피함.

18) 8차 환운은 장소의 이동 없이 정양사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양사의 단풍에 매료되어 발길을 옮기지 못한 심정을 환운으로 강렬히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중략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絢玉彩而週阿兮 想錦幔之飄風◎	찬란히 둘러친 단풍은 비단휘장이 바람에 날리는 듯하다.
引虛步 ¹⁹⁾ 而漸升兮 踞開心之簾屨◎★ ²⁰⁾	신선이 된 듯한 발걸음으로 개심사에 들렀네.
-중략-	
臨青鶴之舊巢兮 涉萬瀑之層磴◎★ ²¹⁾	청학 깃든 보금자리 지나 만폭동 절벽 건너니
屈天潢而注壁兮 爭噴薄而電炬◎	천상의 연못을 기울여 절벽에 쏟아부어 벽력을 치는 듯 천둥이 진동한다.
矯玉虹而下飲兮 掉奔海之群龍◎	무지개 내려와 물마시는 듯하고, 못龍들이 바다로 내닫는 듯하고,
激濺沫於潭洞兮 白日忽其晝昏●	물보라 뿜어올라 폭포에 자욱하더니 홀연 햇빛이 찬란히 빛나도다.
繽杰觀之暢心兮 壯造化之神功◎	보이는 것마다 장관이니 모두가 조화옹의 신공이로다.
摩龍額於石刻兮 將萬峯以鬪雄◎	바위마다 龍이 서린 듯 만이천 봉우리가 다투는 듯하고,
觀一柱於普德兮 疇千歲之不仆●	우뚝 솟은 普德窟의 돌기둥, 천세에 불멸하리라.
取線路於圓通兮 瞰火龍之所府●	원통길 잡아가니 火龍淵이 여기로다.
宿摩訶之仙都兮 夜淸冷而不眠◎★ ²²⁾	마하仙숨에 묵으니 밤기운 서늘하여

19) 신선의 걸음걸이.

20) 9차 환운은 개심사에서서의 여정이다. 가파르지 않지만 고도는 높아 거기에서 내려다 본 금강의 절경과 절의 풍광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절에서 仙界 天都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상력을 환운으로써 발휘하고 있다. 중략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非地勢之陟高兮 儵諸峯之眼底◎ 爐煙生乎蘿逕兮 飄磬韻於林表◎ 辨九十之古菴兮 指禪燈之相照◎ 表獨立乎生臺兮 俄采巖之吐耀◎ 爛柱影之玲瓏兮 敵銀闕乎岩峭◎ 手淸輝而起舞兮 隘八荒而爲小◎

21) 10차 환운은 만폭동과 화룡연의 장면이다. 구룡폭포의 비경과 절경은 개심사와는 또 다른 감동이기에 환운이 필요했을 것이다. 용이 날아오를 것 같은 비룡폭포와 화룡연의 장관이 환운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22) 11차 환운은 마하선사의 밤이다. 만폭동의 장관과는 또 다른 마하선사의 선경을 환운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변의 백전사, 구정봉, 비로봉의 야경이 또 다른 금강산의 비경을 이루고 있다.

風杉拜於泉巖兮 況笙蕭之降天◎	잠 못이루는데, 바람이 숲을 울려 샘물을 울리고, 신선의 피리소리마저 하늘에서 들린다.
蓐首 ²³⁾ 途於白田兮 漱九井於危顛◎	가을은 白田寺에서 시작되고, 구정봉은 높이 솟아있다.
擬掛仙於毘盧兮 風雨搗其攀緣◎	신선자태의 비로봉에 비바람 거세게 몰아친다.
下寂滅而橫濟兮 凌星門而南渡◎★ ²⁴⁾	적멸암 아래로 물을 건너 성문을 넘어 남쪽으로 가니,
-중략-	
巫屏翳之收陰兮 排千瀑於層嶂◎★ ²⁵⁾	음양을 조화하여 천 갈래의 폭포를 절벽에 걸어두었네.
誰名之以十二兮 哂坐井而猜量◎	누가 열둘이라 하였는가? 그 좁은 식견을 비웃도다.
盪雲夢之八九兮 遂弭節兮榆岾◎★ ²⁶⁾	세사번뇌를 씻어내려 유점사에 머물러
禮五十之金身兮 杠百泉而灑淹◎	五十位 부처님께 禮佛드리니 근심 ²⁷⁾ 은 백천에 씻겨가네.
望三日之丹書兮 想舊躅於東巖◎	삼일포 단서를 찾으며 옛날 동암의 발자취를 그려 보고,

-
- 23) '首'는 '收'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蓐收는 秋神, 刑神.
- 24) 12차 환운은 마하선사에서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의 여정이다. 적멸암을 지나 는 금강산의 비경을 묘사하고 있다. 변화난측한 산악기후의 신비한 분위기를 환운의 도움을 받아 그려내고 있다. 중략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駢亂石以搏人兮 若怪獸之呀努◎ 上隱身而頰眺兮 水浩巍而山峯◎ 鬱嶙峋而起抑兮 扇長颯之海濤◎ 誰鋪雲而閔嵌兮 閃電光於腳下◎ 雷隱憐而驅雨兮 向日輪之辮罽◎ 信天柱之非誣兮 寔茲游之堪訖◎
- 25) 13차 환운은 적멸암을 거쳐 유점사에 이르는 여정이다. 짧은 여정을 따로 환운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사부의 환운은 빈번하게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 26) 14차 환운은 유점사에서의 禮佛의 장면이다. 허균은 유생이면서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다. 금강산에서의 마지막 여정인 유점사에서 허균의 돈독한 불심을 환운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해금강인 삼일포에 이르기 전까지의 여정이다.
- 27) 杠은 깃대, 다리, 가마틀 등의 뜻이 있으나 이를 따르면 '가 백천에 잠겨 있네'가 되어 갑자기 詩意가 어색해진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杠을 근심, 번뇌로 옮겨 보면 詩脈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背明波而竝海兮 覲仙老於遼城●★ ²⁸⁾	명파를 뒤로 하고 파도를 끼고 내려 가니 수성에 신선을 보리рода.
發籙中之高文兮 播秦漢之餘馨●	高文典籍을 뒤적이며 先學文人을 따 르고자.
披秋濤與瑞錦兮 鏗雅樂之鈞鳴●	가을바다 물결은 비단결 같아 소리마 져 쟁쟁하고,
觀千秋之逸軌兮 敵楓岳之崢嶸●	아득한 세월의 흐름을 견뎌 금강산은 곳곳이 솟아있네.
洵此行之最富兮 文與山其是并望●	참으로 흥겨운 여행길에 글이 자연과 함께 하도다.

여기에서부터 작품의 본문이 시작된다. 여행의 과정이나 장면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때그때 현장의 감상이 절실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행의 과정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압운도 수시로 바꾸어 주는 換韻을 하고 있는데²⁹⁾ 이는 환운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깊음을 의미한다. 보다시피 이 작품은 자주 환운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장소나 작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면의 절약과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이에 대한 설명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보다시피 환운이 작품의 여정의 이동과 정서의 변화 등 小단락을 구분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이로 보면 환운은 사소한 수사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부문학의 형식적 구조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편이기에 적당히 분량을 보아가면 환운하는 것이 아니라 사부의 내용을 그에 합당한 형식 구조로 표현하는 고도로 세련된 수사 수단인 것이다. 그러기에 환운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문의 시작은 駉余駟로 잡을 수도 있다. 어찌면 작자의 의도는 이것이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환운은 長篇古詩에서도 마찬가지로

28) 15차 환운은 금강산의 유람을 마무리하는 장면이다. 해금강에서 여행을 마치고 금강산을 바라보는 감회를 적고 있다. 해금강의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고 선비로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작품 東征賦에 대한 자부심을 마지막 구절에서 과시하고 있다.

29) ★는 환운이 시작되는 글자이다.

서 사부와 장편한시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즉 장편 漢詩는 사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寶陀於煙外兮 驅余駢於洛迦◎	말을 몰아 洛迦寺에 이르니 부처님 계신 곳에 瑞雲이 감도네.
拓東窓而賓日兮 撫六合而高歌◎	동창을 열어 일출을 맞으며 천지를 노래하니,
唯鑑湖之弊廬兮 合晚境之婆娑◎	호숫가 낡은 집에는 세상풍파가 노을 에 붉고,
卷千里之勝迹兮 陶一壑之煙霞◎	천리의 絶景이 골짜기 연하 속에 펼 쳐 있네.
理襟懷而自娛兮 劃世念之消磨◎	가슴에 품은 뜻 즐기며 세과의 근심 을 잊고자 하노라.
彼軒裳之足憂兮 懷宦海之湧波◎	부귀공명을 좇는 근심에 관작에 눈이 어두워
思輒慄而夢懸兮 肯余踐之再蹉◎	꿈자리마저 사나우니 꿈 속에서 다시 前轍을 밟는다.
倘久享乎淸福兮 知儂得之最多◎	청복을 누릴 수 있다면 스스로 만족 함을 알아
樂天命而奚疑兮 安吾適而葆和◎	천명대로 살면 그뿐, 나의 삶은 절로 편안하리라.
伴猿鶴而相羊兮 寄我矢於碩藹◎	원숭이, 학을 벗 삼아 자족하며 내 뜻 을 기르리라.
日復日而憂哉兮 惟百年之幾何◎	나날이 쌓이는 근심에 백년이 다 무 엇인가?
望美人於四方兮 忽惆悵而長哦◎ ³⁰⁾	미인을 생각하니 서글픔 누를 길 없 어 길게 탄식하노라.

이 부분은 작품의 결말이다. 그런데 작품의 결말을 잡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理襟懷에서부터 여행을 끝내고 그 감

30) 原文은 民族文化推進委員會 編 [韓國文集叢刊]의 惺叟覆瓿藁에 依據함. 필자 번역.

회를 적은 것이므로 작품의 결말로 보아야 좋을 듯하다. 그러나 寶陀에서부터 새로 환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작자는 거기에서부터 결말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 序에서와 같이 작자의 뜻을 따라야 할지, 독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옳을지 쉽게 결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용으로 보아서는 理襟懷에서 결말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화려한 환운을 구사했지만 結에서는 同韻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사부의 압운 수단이다. 작품을 마무리하는 곳에서는 장소나 정서의 변화가 정지되기 때문에 환운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보아도 사부의 환운은 치밀하게 계획된 수사 수단이다.

이로써 「東征賦」는 내용으로 보아서도, 압운으로 보아서도 序-本-結이라는 완벽한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東征賦」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부의 일반적인 특징을 「東征賦」가 충실히 따랐다고 한다면 「東征賦」를 통해서 전형적인 사부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Ⅲ. 「東征賦」의 서술적 태도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사부의 서술태도의 특징으로 서사성과 서정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머리 부분에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고, 결말 부분에서도 역시 그러한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는 이 작품이 풍부한 서정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여행의 과정에서도 곳곳에 여행에서 느끼는 감정이 수시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여행의 과정과 장면의 묘사는 사실의 기록으로 서사성이 분명하다. 특히 대상을 정밀묘사하거나 반복 과장하는 장면이 그렇다. 「東征賦」는 사부의 일반적인 특성인 서정과 서사가 적절히 배합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작품이다.

사부는 과장 반복묘사와 중복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부의 과

시적이고, 현학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漢代에 성행한 古賦는 當代의 학문 장려, 문자의 발달, 문인계급의 득세, 정신문화와 물자의 풍성, 국력의 신장 등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관계가 깊다. 사부 작가들은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고, 사부를 통해서 명성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다. 사부는 漢代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르였다. 사부에는 그러한 漢代의 사정이 반영되기 마련이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장적인 반복묘사와 중복진술이었던 것이다. 東征賦에서도 그러한 사부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森束玉之攢空兮 列瓊嶂之萬壘◎	숲은 옥을 묶은 듯하여 하늘 높이 만 물상이 솟아 있고,
或縞鸞之翱翔兮 或白螭之翕捷◎	난새가 흰 날개를 편 듯, 백룡이 서려 있는 듯,
或大士之捧珠兮 或散聖之步屨◎	큰스님의 염주알인 듯, 성인의 발자 취인 듯,
或威鳳之矯頸兮 或天馬之振鬣◎	봉황의 목줄기인 듯, 천마의 휘날리 는 말갈기인 듯,
或霜蓮之未綻兮 或玳簪之將盍◎	흰 연꽃봉오리 머금은 듯, 玳瑁冠 놀 러 쓴 듯,
或決驟而奮躍乎 或騰蹕而颯沓◎	말이 한꺼번에 내닫는 듯,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듯,
或如仰而更俯兮 或若倒而還立◎	하늘을 우러른 듯, 다시 굽어보듯, 거 꾸로 선 듯, 바로 선 듯,
或壁堆而塊錯乎 或側盆而覆笠◎	벽이 무너져 내린 듯, 동이를 기울여 놓고 샷갓을 얹은 듯,

이 부분에서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금강산의 묘사는 그러한 사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행문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사부의 일반적인 서사적 방식을 충실히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밀묘사와 반복 묘사는 사부의 수사기교를 과시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부의 浮華空洞의 문제점도 드러낸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압운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을 보면 사부는 압운에 매우 충실한 문학이 틀림없다. 그리고 사부의 작품구조나 서정, 서사적 태도와 운문, 산문의 견비와 함께 이러한 서술적 수사는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성산별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사와 사부와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IV. 「東征賦」의 押韻

앞에서 압운과 換韻을 언급한 바 있지만 사부는 압운의 문학이다. 다만 서정과 서사를 견비하기 때문에 압운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 서정적인 부분은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시가성을 띄기 때문에 압운에 충실하다. 서사적인 부분은 사실의 전달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압운을 생략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초창기에는 압운에 충실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압운에 소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정과 서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문의 산문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초창기의 운문일 때는 압운에 충실했으나 후기에 갈수록 산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압운이 흩어져 산문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律詩와 같이 극단적으로 엄격한 압운을 하는 것이 唐의 律賦이고, 산문과 같이 압운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 宋의 文賦이다. 율부는 운문사부, 문부는 산문사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뒤로도 사부는 계속 지어졌지만 宋의 文賦에서 사부의 전형은 완성된다. 이것이 중국의 경우이지만 중국의 사부를 받아들인 한국사부의 경우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대체로 古賦에 충실한 편이어서 극단적인 운문인 律賦나 산문에 가까운 文賦는 많지 않다. 이는 自生문학이 아닌 한국사부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東征賦가 한국 유수의 사부작품이지만 문학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模擬문학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사부의 경우 대개 압운에 충실하고 있고, 「東征賦」도 전반에 걸쳐

압운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 부분에서와 같이 缺韻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사력의 결여나 부주의가 아니라 작품 중에 간혹 압운을 하지 않는 사부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부는 워낙 장편이기 때문에 押韻字를 수시로 바꾸어 주었다. 이 작품의 경우 빈번한 換韻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배경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수사 수단이다. 이로써 작품의 형식구조를 이루고, 여정의 이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사부가 발휘한 고도로 세련된 수사적 기교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부에서 압운이란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정서적 표현수단이기도 하다. 「東征賦」는 이러한 사부의 압운에 충실하고 있어 사부의 형식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鄭澈 「관동별곡」과의 비교

「東征賦」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점은 정철의 관동별곡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장르상으로 이 둘은 매우 닮아 있다. 사실 가사의 장르적 근원에 대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글문학이기에 국문학에서 그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사는 그 문학적 성격이나 형식적 구조로 보아서 사부와 매우 닮아 있다. 그 공통점으로 첫째, 운문과 산문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정철의 관동별곡을 비롯한 가사도 그렇다. 둘째, 서정과 서사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역시 사부와 가사를 비교하면 쉽게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서-본-결의 3단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두 장르의 공통점이다. 넷째, 두 장르는 운문시가문학에서 출발하여 산문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³¹⁾ 중국의 사부가

그렇고, 가사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만약 가사가 사부문학의 영향 아래 형성된 장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구태여 그 유사점을 입증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東征賦」와 관동별곡이 닮았다는 것은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부와 가사의 장르적 유사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東征賦」와 관동별곡은 기행문학이라는 점에서도 닮아있다. 기행성을 같이 갖는다고 해서 영향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부에서 기행성을 갖는 작품이 있었고, 가사에서도 기행성을 갖는 작품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인연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한다. 그 기행의 여정을 보더라도 「東征賦」와 관동별곡은 우연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닮아있다. 물론 작품의 배경이 관동팔경을 현장으로 한 명승지라서 같을 수도 있겠지만 허균이 자신이 존경하던 정철의 관동별곡을 읽어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작품의 인연관계는 좀더 특별하다.

수사적인 태도도 닮아있다. 특히 장면의 사실적인 과장 반복적 묘사는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수사는 비단 두 작품만의 유사성이 아니라 사부와 가사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정리된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면을 줄이고자 한다.³²⁾ 이러한 유사점은 우선 「東征賦」와 관동별곡의 영향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비교한다면 사부와 가사의 장르적 영향관계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가사의 장르적 근원을 사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사의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부와 비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유의 한글문학의 뿌리를 한문학에서 찾는 자세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학문은 감정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는 점이

31) 사부의 근원은 시경이나 초사와 같은 시가문학이고, 가사의 근원 또한 시가문학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부가 장형화, 산문화 되다가 일부는 소설로 변모하는 과정도 있다. 가사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32) 김성수, 『사부문학연구』,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pp.418-433 참조.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東征賦」는 국문학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漢文學이고, 그런 면에서 「東征賦」와 관동별곡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Ⅵ. 결론

허균의 東征賦를 통해서 사부의 문학적 특징을 탐색해 보았다. 「東征賦」는 사부의 일반적 특징을 잘 갖춘 작품으로 이를 통하여 사부의 典型을 파악할 수 있었다. 「東征賦」를 통해 본 사부문학은 서정, 서사의 서술적 방법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감상적인 면과 사실적인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감상은 서정적이고, 사실의 기록은 서사와 관련이 깊다. 서정적 태도가 운문과, 서사적 태도가 산문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사부가 시와 산문의 성격을 아울러 갖추고 있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부가 엄정한 압운을 하고 있다는 것은 詩歌性을 말하는 것이지만 완만하고 객관적인 서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산문성이다. 사부는 모든 장르의 모습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은 장르임을 생각한다면 사부에 대한 무관심은 안타까운 일이다.

「東征賦」는 가장 전형적인 사부문학의 특성을 갖춘 작품이라서 한국한 문학은 물론 한국사부문학의 주요 작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東征賦」를 통해서 사부문학의 3단구조, 압운 등의 형식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압운은 단순히 시가의 음악성을 표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운을 통해서 작품의 배경이나 정서, 분위기, 작자의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는 구실도 한다는 점은 사부문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허균은 사부문학에서도 걸출한 역량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을 꼽을 만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철의 관동별곡과의 비교를 통해서 두 작품 간의 관계는 물론

사부와 가사와의 장르적 인연관계를 유추해 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난제였던 歌辭의 장르적 성격, 장르의 근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許筠의 辭賦는 그의 문학연구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課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그의 사부문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허균의 문학연구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漢文學은 물론 고전문학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 바 이것이 본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參考 文獻〉

- 許筠, 『惺叟覆瓿藁』, 韓國文集叢刊本, 民族文化推進委員會.
- 곽미선, 「許筠 東征賦 연구」,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김성수, 「정철의 관동별곡과 허균의 「東征賦」를 통해 본 가사와 사부의 인연관계 고찰」, 『한어문교육』 4, 한어문교육학회, 1996.
- 김성수, 「허균의 사부문학」, 『인문사회과학』,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간행위원회, 1966.
- 김성수, 『사부문학연구』,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 김진경, 「허균 부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양상」,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이경백, 「가사와 사부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경선, 『가사와 사부의 비교연구』, 한국중국학회, 1967.
- 이은형, 「정철의 가사와 허균의 사부의 비교를 통한 가사의 특성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of Heokun's Dongjungbu

Huang Liang^{*}

Sabu is very important Genre in the Chinese literature. Also have been Many work's in the korea, but hav'nt attract public attention. Isn't only on study Sabu loss but All of the Korean chinese litterature. Attention for Dongjungbu is not only Sabu but Fullness all of the Heokun's litterature. I want by study of Heokun's Dongjungbu not only He's works but make clear Sabu's model. It certain, There is close correlation between Sabu and Kasa. About this Comparative literature work is certainly help on study Kasa. I wish by this study make a contribution to Korean Sabu.

【Key words】 Sabu, Model of Sabu. Heokun. Dongjungbu. Kasa. The Comparative literature.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 Lecturer of School of Foreign Languages, Chizhou University, Chizhou City, Anhui Province, China, / 273871587@qq.com